

시간, 공간, 우연성: 김우영의 철학적 풍경

Philosophizing the Landscape

김우영 개인전

일정: 2017년 11월 23일(목) - 2018년 2월 14일(수)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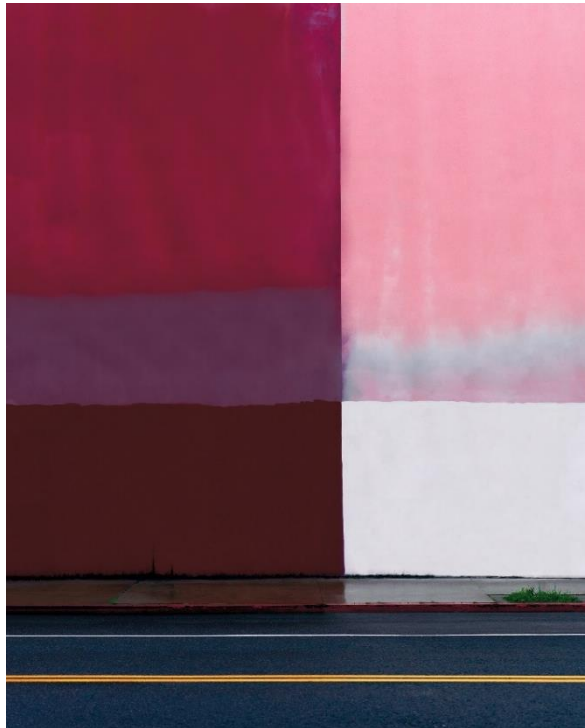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Philosophizing the Landscape 폴더)

김우영 작가 홈페이지: <http://www.kimwooyoung.com>



*6th street III, 2017, 170 x 140 cm, archival pigment print, ed. of 7*

갤러리 시몬은 여행중 마주한 도시의 풍경을 마치 추상 회화 같은 풍부한 색감과 숙련된 감각으로 표현하는 사진작가 김우영의 개인전 'Philosophizing the Landscape'을 개최한다.

예술적 범주로서의 사진과 광고 사진 등에서 폭넓게 인정받으며 서울 베이스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캘리포니아로 떠난 이후, 사진작가로서 김우영은 '여행'을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그에게 떠남이란, 단순히 짐을 싸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아니다. 그가 가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나 대도시의 쇼핑몰 등이 아니라 한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특정 도시이거나 건물이다. 그곳에는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 공간과 함께 했던 대자연의 바람과 빛,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작가는 그러한 건물들의 앞과 뒤를 아주 끈기 있게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진을 찍는다. 작가로서의 어떤 개입이나 사진 자체를 과도하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건물의 표면 자체가 가진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어내는데 집중한다. 특이한 점은 사진 속에는 건물이 담겨있지만 대부분의 작업들은 그 건물이 위치한 대로나 거리 명이 작품제목으로 표기되어 있다. 건물 이름 대신 특정 거리 이름을 써 내려가면서 건물의 정체성과 위치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35-9 Tongui-Dong, Jongno-Gu, Seoul, Korea T. 82 2 549 3031/82 2 720 3031 F. 82 2 549 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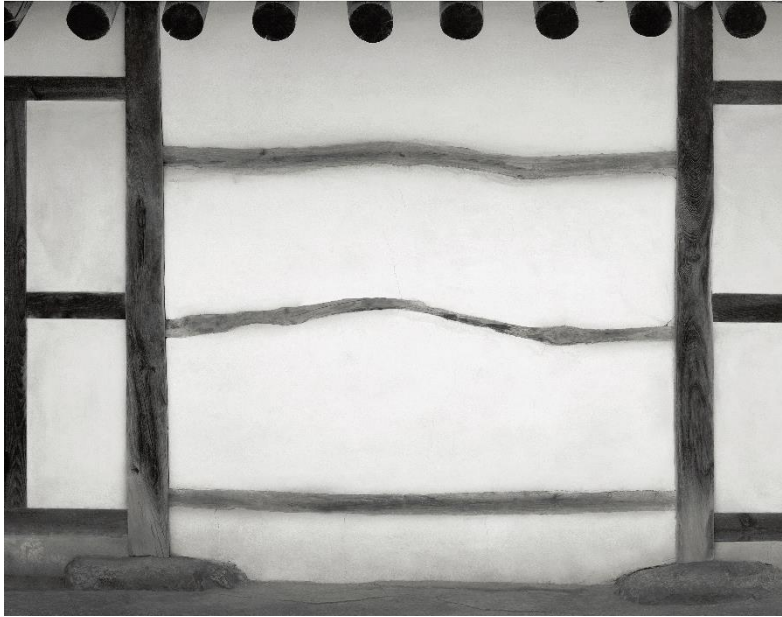
그의 사진에서 느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건물들의 표면에 있는 컬러풀한 색상과 선의 흐름이다. 회색 빛을 띠는 어두운 도로의 컬러, 건물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색, 이러한 면을 연결하는 도로의 선과 건물의 선을 도시공간을 찍은 김우영의 작업을 회화적 추상화로 만들어내는 예기치 않은 미적 결과물이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캘리포니아 특유의 빛과 대자연의 호흡 등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진에 담아왔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회화적 추상, 회화적인 선과 면, 공간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미국 동부의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이 모노크롬한 색을 이용하고 산업재료에 탐닉했던 것과 달리,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과 같은 서부의 미니멀리스트 작가들은 뉴욕의 미니멀리스트들이 경멸했던 자연과 빛, 그리고 강렬한 색에서 미적 즐거움을 느꼈다. 뉴욕 미니멀리스트들이 사랑했던 엄격하고 엄정한 미학적 취향, 그리고 화이트 큐브 안에 어울리는 조각 대신, 캘리포니아 베이스의 작가들은 자연과 빛, 색을 찾아 나섰다. 이러한 서부 미니멀리즘의 특징을 생각하면, 김우영의 사진 작업 또한 빛과 자연, 그리고 추상적 색채, 다양한 건물 표면의 흔적을 재발견하는 것으로, 그의 작업이 미국 서부 현대작가들의 작업에서 보이는 빛을 바탕으로 한 추상화와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 작에서 서울-베이스의 작가가 제작한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전 개인전 내용과는 차별화된, 변화한 지점이다. 도시 공간과 건물 자체를 또 다른 회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킨 점이다. 이것은 그의 작업이 사진 같으면서도 회화 같은, 묘한 경계의 틈을 오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계의 와해 속에서 선과 색, 빛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절제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전시작품 중 〈E 6<sup>th</sup> St〉 시리즈 작품은 모노크롬한 추상화를 연상시킨다. 건물의 표면은 회화적 붓 터치가 캔버스를 켜켜이 덧바르는 효과처럼 보인다. 즉 건물의 표면은 캔버스의 표면으로 환원되어, 물감이 자연스레 표면 속에 스며들어 있는 듯하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국 단색화의 추상적 세계처럼 회화적 색채와 건축 표면의 색채가 기묘하게 우리의 눈에서 연상 작용을 일으킨다. 그의 작업이 아주 한국적이라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텅 빈, 때로는 폐허가 된 건물들은 찾아나서는 김우영에게 여행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정 건물을 찍은 그의 작품은 그 도시의 거리 이름이 작품의 제목으로 지어진다. 그에게 여행의 경로, 여정을 지정하며 이렇게 연결되는 장소는 사진적 행위가 각인된 특정 공간이다.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과거에는 '있었다'는 흔적을 지지하는 가장 정직한 행위로 인정받아왔다. 여전히 그에게도 사진은 지나간 흔적, 행위, 역사를 찾아나서는 민족지학적(ethnographic) 행위 자체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사진의 결과물로는 알 수 없는 빈 틈, 그리고 빈 여정들을 우리는 읽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단순한 여행사진, 장소의 기록으로 볼 수 없는 점은 그의 작업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은 이후, 그는 컴퓨터에서 카메라 렌즈로 포착할 수 없었던 세부를 모두 확인하고 이 안에서 사진적이거나, 회화적, 추상적 선과 면을 발견한다. 여행은 작업실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재발견하고 이미지와 교감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작업까지 모두 포함한 결과물이 김우영의 사진작업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러므로 김우영의 사진작업은 때로는 너무 사진적이고 때로는 회화적, 추상적이다. 때로는 여정 자체가 수행자의 반복적 체스처를 반추하게 한다. 캘리포니아, 혹은 한국적인 특징도 오버랩 된다.



Hanok 9168, 2016, 100 x 125 cm, archival pigment print, ed. of 7

김우영은 외국에 수 년 동안 체류하며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으면서도 ‘우리 것’을 담기 위한 시도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사찰과 서원을 유람하며 카메라 안에 특유의 한국적 풍광을 담아냈다. 그는 계절의 추이에 따라 답사를 계속하며 한 사찰의 터에서 옛 건축의 부드러운 곡선들이 대지의 여백과 어우러져 뿜어내는 절묘한 리듬감에 매료되었고 풍경을 예민하고 섬세하게 담아내었다. 한옥 시리즈에서 김우영은 이전의 도시 색면화에서 보여주었던 강렬한 컬러의 힘을 과감하게 버리고, 잠시 고요한 설경 속으로 들어가 뿌리내린 듯 하다. 흰 눈으로 덮인 사찰의 겨울 풍경에서 슬며시 드러나는 여백의 미와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리얼한 모노크롬 색상은 비움의 정취를 연상시킨다. 그의 사진은 설경 속에 우연히 드러나는 ‘비어있는’ 아름다움을 통해 서구의 미니멀리즘과는 차별화된 우리의 전통 미술 속 내재된 한국의 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한옥의 지붕선과 담, 서까래 등에서 느껴지는 멋을 형태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생명, 죽음, 삶의 흔적과 기억들을 함축하고 정제하여 그만의 어법으로 아름답고 섬세하고 표현한다. 더불어 이러한 추상적인 점, 선, 면과 공간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한국 전통 한옥이 지닌 여백과 절제미와 같은 한국의 미를 재해석한 작가는 공중에 대한 미학적 사유를 담아낸다. 한옥의 수려한 곡선미는 그의 작품에서 특히 수묵화에서 느낄 수 있는 단아한 조형미를 연상시키며, 눈 덮인 겨울 풍경을 통해 사사무애事事無礙, 즉 비어있는 공간 또는 새로운 것들을 무한히 담아내는 생성의 공간이 양립하는 세계를 반영한다.

김우영 (b. 1960)은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1994년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chool of Visual Arts)에 입학하여 다시 사진 전공으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2017년 갤러리 시몬에서의 개인전 ‘Philosophizing the Landscape’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rt Hamptons, LA Art Show, SCOPE Miami 등의 해외 아트페어와 국내 아트페어에 작품을 꾸준히 출품하며 순수예술의 영역에서 사진작품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1998년에는 뉴욕 광고 페스티벌에서 브론즈상을 받았고,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포토 디렉터를 맡았던 ‘Neighbor’를 비롯, 다섯 개의 매체를 론칭 시키는 것은 물론 패션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가, 영화감독, 연극인, 사회 단체를 파트너로 우리의 눈과 감각, 마음과 감성을 자극하는 수많은 작업을 계속해왔다.

## gallery **simon**

김우영의 작품은 단순한 도시의 단편적 기록물이 아닌, 작가만의 언어로 정제되어 불순물 없는 현실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풍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다. 도시의 풍경을 우울과 비극으로 끝내지 않는 데에 김우영의 예술적 성취가 있다. 도시의 처참한 욕망을 성찰로 이끌고, 마침내 정화에 이르게 하는 재생의 빛을 찾아내려 했던 필사적인 노력은 그의 사진에서 생생하게 피어나고있다. 또한 한옥 벽면의 해학적인 선을 재해석하여 한국 특유의 풍광이 지닌 비어있는 정취와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함께 호흡하는 그의 사진을 이번 전시 'Philosophizing the Landscape'에서 발견할 수 있다.

**KIM, WOO YOUNG**

**SOLO EXHIBITION**

- 2017 '시간, 공간, 우연성: 김우영의 철학적 풍경' 갤러리 시몬, 서울  
2016 '김우영 사진, 우리 것을 담다' 최순우옛집, 서울  
2016 'Along The Boulevard' 박여숙화랑, 제주  
2016 'Along The Boulevard' 박여숙화랑, 서울  
2014 'Boulevard Boulevard' 박여숙화랑, 서울  
2014 'Boulevard Boulevard' 박여숙화랑, 제주  
2013 'THROUGH MY EYES' THE PERFECT EXPOSURE GALLERY, 로스앤젤레스  
2013 'THROUGH MY EYES' ANDREWSHIRE GALLERY, 로스앤젤레스  
2007 'HELLO EVERYONE'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6 'NEIGHBOR'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5 'BEAUTIFUL PROMISE' 금호미술관, 서울  
2005 'THE MOST BEAUTIFUL CHALLENGE IN THE WORLD'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3 'THERE AFTER' 일민미술관, 서울  
2003 'BEAUTIFUL FACES'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1 'JUST HERE' 박영덕화랑, 서울  
1997 'WOMB' 박영덕화랑, 서울  
1993 'EARTH' East West Gallery, 뉴욕  
1993 'DIALOGUE WITH NATURE' 서울갤러리, 서울  
1991 'TO MY MOTHER AND TO YOU SOO' Visual Arts Gallery, 뉴욕  
1989 'NEW WORKS' 공간갤러리, 서울

**GROUP EXHIBITION**

- 2017 '서울시립미술관 신소장품 선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7 'Your Hand, My Heart' 갤러리 시몬, 서울  
2016 'ARRIVAL' 갤러리 시몬, 서울  
2016 KIAF, COEX, 서울  
2016 아트부산, 벡스코, 부산  
2015 KIAF, COEX, 서울  
2015 ART BUSAN, 벡스코, 부산  
2014 SCOPE Artfair, 마이애미, 미국  
2014 Art Hamptons, 뉴욕, 미국  
2014 LA Artshow, LA, 미국  
2007 'EYE ON KOREA' Hofburg Imperial Palace, 인스브룩, 오스트리아  
2006 'SPOTLIGHT 30 WOMEN' 페이퍼테이너뮤지엄, 서울  
2006 'PEOPLE UNDER THE LANDSCAPE OF SEOUL' 175 Gallery, 서울  
35-9 Tongui-Dong, Jongno-Gu, Seoul, KoreaT. 82 2 549 3031/82 2 720 3031 F. 82 2 549 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 2006 'PHOTOGRAPHY NOW' 나우갤러리, 서울
- 2005 'INTERNATIONAL ART FAIR' 서울아트센터, 서울
- 2004 'B-CUTS' 대림미술관, 서울
- 2003 'FASHION PHOTOGRAPHY' 신세계갤러리, 광주
- 2003 'FASHION PHOTOGRAPHY' 대림미술관, 서울
- 2003 'SONG-DAM ART FESTIVAL' 송담갤러리, 용인
- 2002 'INTERNATIONAL ART FAIR' 핑야오, 중국
- 2001 'FASHION ART FESTIVAL' 컨벤션센터, 부산
- 2001 'PERSONAL COLOR' 하우아트갤러리, 서울
- 1997 'C.K.N.P Show' Camelot, 서울
- 1997 'FASHION PHOTOGRAPHY AS AN ART' 코엑스, 서울
- 1993 'Art Binnale' Cepa Gallery, 뉴욕

**PUBLICATION**

- 2007 'HELLO EVERYONE' H & C, 서울
- 2006 'NEIGHBOR' 솔출판사, 서울
- 2005 'BEAUTIFUL PROMISE' Human Expedition, 서울

**COLLECTION**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 우란문화재단, 서울
- 본태미술관, 제주
- MCM 성주그룹
- 하나은행